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보 좌 신 부 전 교 수 녀 꿀 벌 유치원 요셉어린이집 총 회 장 연 령 회 장	정 재 준 정 인 혁 강 인 석 박 경 석 정 은 자 김 미 리 정 선 아 최 향 숙 김 아 람 황 태 영 김 영 길	사도요한 요셉 (청년부)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한나 (원장) 에블린 (유·초등부)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베로니카 수녀 소화데레사 수녀 프란치스코 바오로 010-3719-0036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 십자가의 길 (월 ~ 토요일 아침)

- 사순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은 매일 아침(05:50), 저녁(18:20)에 시작합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담당 구역

3/29(월)	3/30(화)	3/31(수)
22구역	23구역	24구역

● 알 림

- 사순실천 봉헌(사순저금통) 및 판공성사표 배부 안내
- 구역외 신자는 사순실천 봉헌(사순저금통), 판공성사표를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오늘은 오라토리요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사순절 판공성사 안내

- 사순절 판공성사는 미사 30분 전(후)에 실시합니다.
- 서울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주간 전례 일정 안내

- 성삼일(04월01일~04월03일) 동안 평일 미사 없습니다.

04월 01일(목)	저녁 8시	주님 만찬 성목요일
04월 02일(금) 금육, 금식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저녁 8시	주님 수난 성금요일 ※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04월 03일(토)	오후 4시	어린이 부활절 미사
	저녁 8시	부활 성야 미사 (사순 생활 실천표 봉헌)
04/04(일) 부활대축일	06:30 미사 없음	
	10:30(교중), 10:30(중고등부)	
	12:00(낮), 19:00(저녁)	

● 성물방 판매 시간 및 신간 안내

- 판매시간 : 주일 10:00~13:00
- 신간서적 : “요나와 함께 걷는 40일”
“엘리아와 함께 걷는 40일” 추천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시간

	토요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3/28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 미사는 05:30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히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다음 주일(04/0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0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3월17일 ~ 03월23일)

교 무 금	 7,122,000원
주일헌금	 4,324,000원
사순절 이웃돕기 2차 헌금	 613,000원
감사헌금	황혜영20만원 김명식10만원 윤현이20만원 이두남10만원 오귀명 5만원 이우선20만원 정애자10만원 박상덕100만원 최OO 5만원 황정후 5만원 홍종열12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3/28	이영민	최영만	신종구	최웅조	구민서
04/04	박혜선	조홍환	김영균	장익근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19:00
03/28	김인기	박형순	박용환	박승환	장인홍	이성일
04/04	박승환	오광운	박용환	김인기	최상남	이운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등학교 봉사자 모집
(한국어/중등수학 선생님)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모든 형제들

1. “모든 형제들”. 이 말을 통하여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형제자매에게 복음의 풍미를 지닌 삶의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권고들 가운데, 지리적 장소와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나의 권고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권고에서 그는 다른 이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가까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복 되다고 선포합니다. 이 짧고도 단순한 말씀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열린 형제애의 본질을 설명하였습니다. 열린 형제애는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넘어 출생지나 거주지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2.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쓰도록 제게 영감을 준 이 형제적 사랑, 단순함, 기쁨의 성인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새로운 이 회칙을 쓰도록 제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자신을 태양과 바다와 바람의 형제라고 느낀 프란치스코 성인은 같은 육신에 속하는 이들과는 더욱더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그는 평화의 씨앗을 뿌렸고, 가난한 이들과 버려진 이들, 병든 이들, 쫓겨난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경계 없는

3. 출신, 국적, 인종, 종교에 따른 격차를 뛰어넘는 무한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말리크알카밀 술탄 방문에 관한 일화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의 가난과 그가 지닌 빈약한 재원, 거리,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종교의 차이 탓에 이 방문을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습니다, 십자군으로 특징 짓는 역사적 시대에 이루어진 이 여행은 성인이 실천하고자 하던 사랑, 모든 이를 품어 안고자 열망하는 사랑의 위대함을 더욱 잘 보여 주었습니다. 형제자매를 향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사랑은 주님에 대한 그의 충실성에 비례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위험과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던 다음과 같은 자세로 술탄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라센인과 다른 이교도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논쟁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위하여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이는 특별한 요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지금보다 800년이나 앞서, 모든 형태의 공격이나 분쟁을 피하고, 같은 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형제적 ‘순종’을 실천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